파이낸셜뉴스

2022년 7월 14일 목요일 022면 종합

“조달현장 숨은 규제 혁신… 기업 발묶는 ‘모래주머니’ 뗄 것”

규제개혁 팔걷은
이종욱 조달청장

【대전=김원준 기자】 “규제혁신은 기업간 경쟁을 촉진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이는 결국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13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규제혁신은 단순히 민원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동력이 된다”며 규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4일로 취임 꼭 두 달을 맞는 이 청장은 그간 조달행정의 중심을 규제 개혁에 맞췄다. 이달 7일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 위원회’를 발족한데 이어 산하에 실무추진단 구성도 마치고 체계적인 규제혁신 기반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이전의 실적을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 한국형 혁신조달 모델을 정립한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이 청장은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나갈 것”이라면서 “훈령·지침 등 명시적 규제뿐만아니라 공무원들의 잘못된 업무관행 등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까지도 찾아 고치겠다”고 말했다.

조달청의 국유재산관리 기능 강화도 이 청장이 신경을 쏟는 부문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각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외에 무주(無主)재산 및 자투리 국유재산만을 관리하고 있는 조달청의 국유재산관리 기능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 청장은 “실제 용도가 끝났는데 각 부처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이나 무주 부동산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한다”면서 “현재의 국유재산관리 체계에서 조달청의 관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첫 조달청장으로 부임했는데 소감은.

▲조달청은 연간 77조원에 이르는 조달사업을 수행하고 원자재비축 및 국유재산, 나라장터 운영 등을 담당하는 70년 역사의 중앙 행정기관이다. 기획재정부 근무시절 조달사업법 개정과 혁신조달 도입 등 조달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인연을 맺은 조달청에 부임하게 돼 영광이다.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새 정부 첫 조달청장으로 부임해 막중한 책임감도 느낀다. 연간 184조원의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역동적으로 재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조달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혁신성장·경제성장을 견인하기위해 조달제도를 정비하겠다.



이종욱 조달청장이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공무원 잘못된 업무관행도 개선
민간의 자율·창의성 확대 뒷받침
한국형 혁신조달 모델 재정립
희소금속 등 정부비축 늘리고
비상 조달체계 마련해 中企 지원도

—최근 직원들에게 공공조달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존 조달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래주머니’를 없애나갈 것이다. 훈령과 지침 등 명시적 규제뿐만아니라 공무원들의 잘못된 업무관행과 소극적 업무태도에 기인하는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까지도 찾아 혁파해 나가겠다. 이를 통해 일선 조달현장에서 조달기업들이 맞닥뜨린 불편함과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제거, 민간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촉진해나갈 것이다. 또 지난 실적을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한국형 혁신조달의 모델을 새로 정립하겠다.

—공공조달 현장에서 추진예정인 규제혁신 방안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역동적 조달시장 조성을 위해 명시적 규제뿐만아니라 그림자 규제까지 찾아 개선,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겠다. 이를 위해 ‘현장·체감·대안’이라는 3대 원칙을 정한 상태다. 혁신을 담당할 실무추진단 성격의 조달청 내부 ’조달현장규제혁신 태스크포스‘와 외부민간위원 등이 참여하는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혁신조달의 추진방향은.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조달의 전략적 활용이 중요해 지면서 공공조달의 역할 및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민간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없는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첫 구매자가 되는 혁신조달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조달은 그간 양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까지 총 968개의 혁신제품을 지정했으며, 26개 제품을 시범구매 대상으로 선정, 717개 기관에 744억원 규모의 시범사용을 진행했다. 올해는 465억원의 시범구매예산을 투입, 혁신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들과의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중인 혁신아이템의 발굴 및 조기도입을 추진할 것이다. 또 지난해 도입한 인규베이팅과 스카우터 제도를 확대해 혁신제품을 발굴해 나가겠다.

—정부비축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조달청은 현재 전국 9개 비축기지에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6종과 희소금속 9종 등을 비축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가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비축확대 및 비축시설 확보와 함께 비상시 긴급조달체계 마련 및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금확충을 통해 경제안보 핵심품목 중심의 신규 비축을 추진하고 비철금속 비축량을 60일분까지 확대할 것이다. 또 비상시 긴급조달 절차를 통해 정부 직접 수급을 지원하고 상시방출 및 외상·대여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 연장하겠다.

—수출유망 조달기업인 ’지패스(G-PASS)‘기업 지원책은.

▲지난 2020년 기준 해외조달시장 규모는 12조8000억 달러로 추정되는 거대한 시장이지만 우리기업의 참여율은 1% 안팎에 그치고 있다. 정보 및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지패스(G-PASS)지정제도를 운영중이다. 지패스는 기술력과 품질이 검증돼 해외시장 진출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한 중소·중견기업을 말한다. 그동안 전담조직 신설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으로 지패스기업의 수출실적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영역확대와 교육과정 내실화, 코디네이팅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예정이다.

kwj5797@fnnews.com